

美國의 養鷄産業과 우리의 國際競爭力



임 용 택
(서일농장 대표)

**미국은 무진장한 사료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따뜻하고 넓은
땅을 밍대로 사용해 1인당
채란계 70만수를 관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5천수를 넘지 못한다.**

미국의 양계장 두세군데를 보았다고 미국의 양계산업을 운운할 수가 있을까?

미국의 계란 G.P.센터, 수퍼마켓 두세군데를 겨우보고 농무성(農務省: USDA)이나 어느 주정부(州政府)를 한번 기웃거리 보았다고 미국의 양계산업을 말하며 우리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면 비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옥수수 밭이라고 작정없이 컷지만 빈밭이나 보았고 풀도 메달리붙은 겨울 목야지(牧野地)엔 우수소 비육소만 수백마리씩 떼지어 다니는 것을 그저 지나쳐 보았을 뿐인데 나는 왜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독자의 표정을 살피야 하나?

나는 이런 의문을 한없이 떠올리면서 그래도 이 글을 쓰지 않고는 안될 처지임을 절감했으니 이런 마음을 노파심(老婆心)이라 하던가?

그러나 미국이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더군다나 우리처럼 바쁘고 수익없는 양계에 생존을 건 사람에게야! 또 이번 시찰(視察)은 미농무성(美農務省)이

나 미사료곡물협회가 잘 안내해줘서 단기간이지만 미국 양계전문야를 입체적(立體的)으로 잘 파악케도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9일자 축산신보에서 미국을 가기전에도 걱정했지만 양계로 겨우 밥을 먹고사는 사람이 미국의 양계를 보니 저 산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 오면 우리산업은 이제 끝장이 나는거다 싶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단견(短見)에 둔필(鈍筆)임을 무릅썼다 면 그저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로만 여길 수는 없으리라.

그러면 미국의 양계산업은 어떠한 것이든가? 우리는 지난해 11월11일 "계란소비자교육연구팀"이란 이름으로 서울경기양계조합장을 위시한 생산자4명 농림수산부, 양계협회, 미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에서 각 1명씩 7명으로 방미(訪美)길에 올랐다.

12일 첫날은 뉴욕에 도착 할란공장과 난가공공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뉴욕지역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비행기기착(寄着)이 어렵다 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방향을 돌려야만 했다.

13일 우리는 미농무성을 방문, 미국의 계란양계산업 현황, 정부의 역할, 미국의 계란협회(American Egg Board)의 역할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여기에서 안 일이지만 계란의 1인당소비는 줄고 있었는데 콜레스테롤문제와 살모넬라문제가 제기돼 연구와 해명에 전념(專念)이 없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에 1974년 법(法)으로 제정(制定)한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계란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 / 1976년부터 시행) 밑받침을 하고 있었다.

이 자조금제도(自助金制度)는 계란상자당(360個入)

5센트씩 연간 약 700만불을 체크오프(check off)하는 제도(制度)였는데 이 돈이 콜레스테롤이나 살모넬라 계란의 영양등의 연구에 쓰임으로써 미국뿐이 아니라 온 세계의 계란양계산업에 큰 기여(寄與)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계란의 영양(營養)을 연구하는 계란영양센터를 방문했고 마침 아틀랜틱 씨티에서는 동북미(東北美)계란생산자 교역박람회(交易博覽會)가 개최케 돼 있어서 15, 16일은 이곳을 참관, 최신산란계 사육, 집란(集卵), 난가공 설비를 견학하고 계란 판촉에 대한 강연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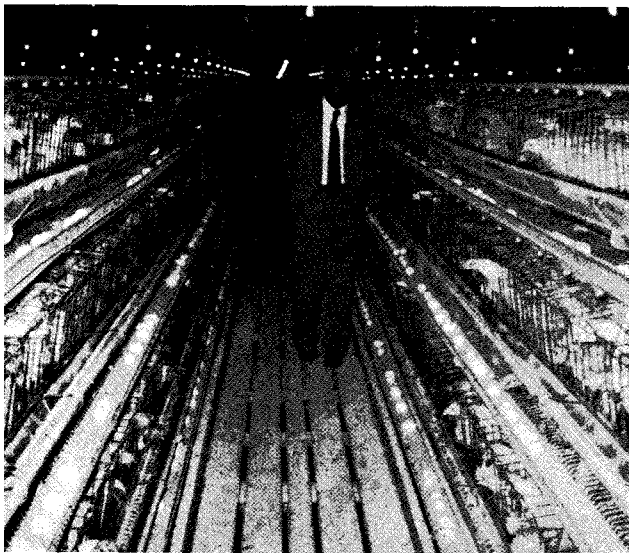
우리는 다음날 계란의 유통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코스(洲)를 밟았다. 인디애나주(洲)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산란계가 많은 곳이라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계란의 유통(流通)을 보기 위하여 마-쉬라는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상당한 매장을 가진 식품부중(食品部中)극히 한정(限定)된 곳에 계란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슈퍼는 인디애나주(洲)를 비롯 이웃 몇개주(個洲)에 75개의 슈퍼 체인을 갖고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후에 방문한 125만 수(萬首) 사육농장과 연중 납품계약(納品契約)이 된다는 상황에서 미국계란유통의 규모를 알수가 있었다.

다음 우리는 이 75개 체인에 상품(商品)을 조달하는 집하장을 보았다. 슈퍼별로 보내질 상품포장에 고유번호(固有番號)만 부여하면 콘베어 시스템에 따라 슈퍼별(別)로 분리돼 차에 적재(積載)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인건비절감은 물론 그 다양한 상품의 입출고(入出庫)를 컴퓨터가 정확히 계측(計測)할 것이며 이로써 재고정리(在庫整理)가 별도의 파악없이 정확히 되고 있었다.

다음에 인디애나 폴리스의 도심(都心)에 자리잡은 오말리아라는 주로 식료품(食料品)을 취급하는 슈퍼를 둘러보고 이곳 한편에 마련된 요리실습장(Cooking school)에서 계란오므렛을 해서 점심을 먹었다. 이는 후일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미국인 계란의 전도사 하워드 헬머씨에 의해서 서울에서 연출(演出)되도록 된 행사의 미국 실습(美國實習)이었다. 17일 오후 우리는 양계장을 보기 위하여 육로편(陸路便)으로 수백리(數百里)를 달렸다. 양계장 하나를 보기 위하여 아마도 서울에서 대구쯤은 가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인디애나 주정부(洲政府)와 인디애나 옥수수생산자협회(生産者協會)가 차도 내주고 안내를 해줘서 가능한 것이라 여겨졌다.

어디를 가나 산(山)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도 벌판에 서 있었고 도시도 농가도 모두 벌판에 서있



었으며 광활한 벌판에는 옥수수를 베어낸 밀등만 한없이 꽃혀 봄을 세고 있었다. 우리는 저녁 늦게 크레이튼 부라더스라는 한 크지않은 사료공장(飼料工場)에 닿았다.

입구(入口)에서 청바지에 점퍼차림의 한 꺼벙한 촌부(村夫)의 안내를 받았는데 그가 바로 이 농장의 사장이었고 자기농장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사료공장은 10분당 5%(日産 約 250%)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공장자동인원은 지배인을 합해서 7명이고 생산하는 사료는 80%가 자가용(自家用)이며 20%는 외부에 판매한다.” “축산규모(畜産規模)는 산란계 125만수, 종계가 20만수이고 비육돈이 10,000두 모돈 450두 비육우 6,000두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요(所要)옥수수의 1/3은 자기 옥수수밭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이웃 농장의 (20마일 이내 위치)옥수수를 쓴다.”는 설명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이사장의 겸소함에 우리는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

저녁에 우리는 만찬에 초대되었는데 이곳에서 6.25때 한국전(韓國戰)에 기자로 중군(從軍)했다는 분이 1952년 이 농장사장의 선친인 크레이튼씨가 한국에 백색레그혼종란을 구호품(救護品)으로 기증하는 사진을 찍어 소장(所藏)했던 것을 여러장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나의 집안 할아버지 되시는 임병직(林炳稷) 당시 외무장관계서 이를 인수(引受)하는 사진 석장을 얻어 길이 간직할 선물이 되게 하였다.

18일 우리는 크레이튼농장(農場)과 G.P.센터를 들렀다. 여기에서 우리는 50만수, 70만수씩 되는 산란계를 혼자서 관리하는 미국식농장(美國式農場)을 알게 된다.

평지에 5만수짜리든 7만수짜리든 같은 계사를 나란히 세워놓고 물도 사료도 환풍도 자동으로 시켜준다.

계사는 고상식(高床式)이어서 계분건조도 좋으려니와 1년에 한번 기계로 끌어내면 될 일이고 계란은 자동집란벨트에 실려 움직이는데 전체 계사를 직렬(直列)로 연결하는 보다 큰 벨트로 옮겨 10동(棟)이건 15동(棟)이건 다 같이 운반되는데 바로 연결된 G.P.센터까지 가는 것이다.

이 연결된 여러개 계사에 혼자서 이곳저곳을 살피는 것이 고작이고 어디를 가나 G.P.센터는 양계장과 같이 있어서 집란(集卵)과 수송에 수고가 생략되고 있었다.

사람의 손이 한번도 닿지 않은 계란은 G.P.센터에서 오란과 파란 혈란 등이 골라지고 G.P. 처리후 등외란을 제외한 계란이 12개 내지 18개씩 포장되어 360개로 박싱(Boxing)이 돼 시중(市中)에 나가니 파란올도 우리나라의 G.P. 처리 안한 것보다 훨씬 낫았다.

이곳서 안 바로는 G.P. 센터에서 나오는 부적격란인 오란, 파란, 등외란 등과 수피에서 시간경과돼 반품된 일이 가공이용된다 하니 이렇게 생산된 난가공품이 얼마나 팔수 있는지는 우리가 똑같은 식란을 가공하고 있는데에 비추어 볼때 짐작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곳을 거쳐 초어타임이란 세계에서도 우수하다는 양계기구제작소에 갔다. 수만평 대지에 수천평의 건물내(建物內)에서는 케이지 사료급이자동시스템과 기타 양계기구가 한없이 찍혀 나오고 있었다.

뒤에 캘리포니아 양계협회에서 안 일이지만 미국에도 20년~30년씩 된 노후계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서 이들 계사가 시설을 대체중(對替中)이라니 이 공장의 바

▶완전자동화된 크렌필드채란 양계장모습 (Modesto, CA)



뿐사정도 짐작이 되는 일이었다.

여기에서도 20~30년씩 되었다는 구계사를 보지 못한 것과 이들이 신시설(新施設)로 바뀌면 얼마나 생산이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도리가 없었고 이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시설을 써주기를 열심히 바라는 바였지만 이는 우리에게겐 그림의 떡 같은 것이었다.

18일 오후 우리는 세계의 곡물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카고로 갔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소리높여 손짓으로 경매(競賣)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곳서 세계의 현재와 미래의 곡물이 거래되고 동시에 거래가격이 또한 전세계에 통보된다 하였다.

우리는 저녁에 미국에서 제일 양계생산이 많다는 캘리포니아를 보기 위하여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데스토라는 곳까지 강행군을 했다.

19일 이곳 모데스토에서 서부태평양지역 11개주가 가입되어 있는 태평양지역 양계협회를 방문해 대학교수의 안내로 양계장 2곳과 G.P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양계시찰이라는 공식일정을 마치고 일부는 근무를 위해 본국으로, 생산자일동은 관광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양계산업을 살핀 대강의 줄거리이다.

우리는 근간에 양계산물의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런 말을 해야 유능한 양계지식인 같고 이런 말에 잘 익숙돼 있어야 유능한 양계인이라 생각하는 자(者)가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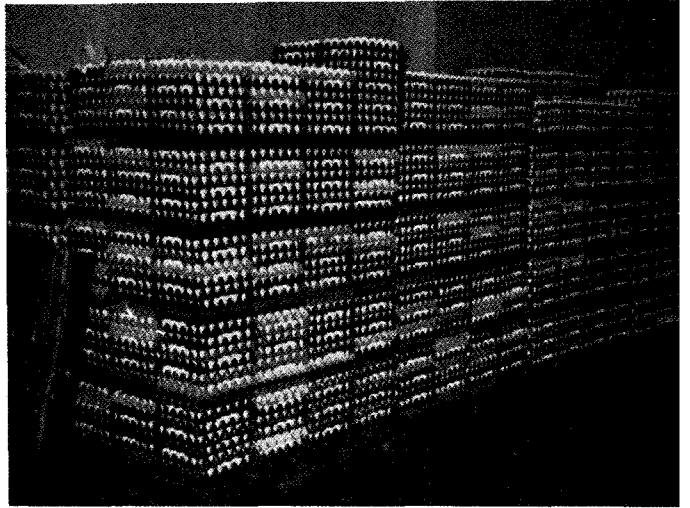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나라 양계인과 생산경기를 해서 메달을 다투자는 말이 아니다. 저 미국의 계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끄떡없이 우리 양계가 견딜 수 있느냐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무진장한 사료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양계사료(全養鷄飼料)를 이들 나라에서의 수입에 의존한다.

미국은 따뜻하고 평평한 땅을 맘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추워서 고상식(高床式)이 불가(不可)하고 평평한 농지(農地)의 사용은 불가하다.

미국은 한 사람이 70만수를 관리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5천수를 관리한다.

난가공품은 더욱 그렇다. 미국은 난가공의 원료란(原



料卵)은 계란의 흠 있는 알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원란(原卵)을 그대로 사용한다.

여건이 이렇게 상이(相異)한데 어떻게 우리보고 경쟁력(競爭力)을 갖추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지난해 말경 우리에게 양계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라는 강한 압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만일에 미국의 양계산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우리 양계산업을 밀어 붙이면 우리 양계인의 생존권은 물론 사료업체 약품업체가 반쪽이 되고 수많은 계란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생업(生業)을 잃고 정책을 하며 미국에 반감을 가질 것이니 양계산물의 수입(輸入)도 소비(消費)도 원활할 수가 있으랴?

이렇게 되면 미국은 사료나 팔아 먹을 것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설 것이고 무역역조(貿易逆調)를 시정(是正)코자하는 양국정부의 이 노력은 역효과만 낼 것이다.

근간에 우리는 대권주자(大權走者)들도 기업의 축산 참여를 반대한다는 공약(公約)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의 축산은 많은 어려운 축산인들의 생존권(生存權)의 문제이기에 국민의 생존권은 무엇보다 존중(尊重)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표현(表現)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視覺)이 정책(政策)으로 이어질때 무모한 축산물의 수입은 억제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런 시각임에도 근간 최고기수입으로 빚어지고 있는 축산인과 정부의 침예한 대립 양상은 우리 양계인들에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보다 넓은 예리한 판단으로 정책(政策)의 추이를 살피며 우리 터전을 굳세게 지키자고 호소하면서 이번 방미(訪美)를 통해 미국 양계업을 보고 이 호소를 하게 해준 미사료곡물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안기**